

상부 기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선양 양성 암종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준성*, 신성준, 김영전, 이재형, 박은주, 손장원, 윤호주, 신동호, 박성수

원발성 기관종양은 전 폐종양의 0.1% 미만을 차지하며 전체 종양으로 인한 사망 환자의 원인 질환으로 0.1%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원발성 기관종양은 대부분 원위부 1/3과 기관 분지부에서 발생하며, 편평상피암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종양으로 알려져있다. 선양 양성 종양(Adenoid cystic carcinoma)은 주로 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점액 분비선의 태생기적인 형태인 종말관(terminal duct)이나 삽입관(intercalate duct)의 관세포(ductal cell)나 근상피세포(myoepithelial cell)의 이형성으로 발생한 종양으로 원발성 기관 종양 중 두 번째로 흔한 빈도를 보이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양 양성 종양은 다른 종양에 비해 자연 경과가 매우 길고 국소 재발과 혈행성 전이율이 높아 임상적으로는 악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증상이 특이하지 않아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되어 치료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내원 1달전부터 악화된 호흡 곤란으로 타병원에서 전신으로 치료 받다가 방문한 43세 남자 환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고전적인 흉곽 내외의 폐색 소견이 의심되어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후두 부위에 전벽으로 돌출한 종괴 소견과 성대 아래 부위에 기관 내경을 둘러 싸며 내강으로 돌출된 종괴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조직 검사에서 선양 양성 종양으로 확인, 이어 실시한 검사에서 폐실질 및 흉추, 늑골 전이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방사선 및 항암요법을 시행 중인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폐종괴와 유사소견을 보인 폐혈종 1예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김정주*, 리원연*, 신표진*, 용식중*, 신계철*, 성기준**

폐쇄성 흉부외상은 때때로 외상성 가슴낭종 혹은 폐혈종을 초래하는데 교통사고와 같은 심한 둔상에서 잘 발생한다. 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발생하며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완치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외상전에 검사받은 필름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과거력을 모르는 경우 때때로 폐종괴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폐쇄성 흉부외상으로 내원한 30세 남자환자에서 폐종괴와의 감별이 필요했던 폐혈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0세 남자 환자가 경운기 사고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진흉부 동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내원당시 단순흉부촬영에서 우측 기흉이 있어 흉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시행한 단순흉부촬영상 우상폐야에 0.5cm 크기의 고립성 폐결절과 우측 폐문부 용기가 관찰되었으며, 이전에 검사받은 필름은 없어 비교관찰할 수는 없었다. 내원 4일째 시행한 단순흉부촬영상 좌측 기흉 소견보여 흉관 삽관을 시행하였고 내원 7일째 양측 기흉이 호전되어 흉관을 제거하였다. 우상폐야의 고립성 폐결절과 우폐문부의 용기가 외상 18일째에도 변화없이 관찰되어 폐종괴와의 감별을 위해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상 우상엽 후분절, 우하엽 상분절과 전기저분절에서 조영제 투여에 관계없이 균일성 고밀도를 보이는 폐결절이 관찰되었고, 외상 27일째 시행한 MRI에서는 T1강조영상과 T2강조영상에서 전반적으로 고신호 강도를 보여 아급성 시기의 혈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본 환자는 방사선학적 소견상, 외상에 의한 다발성 폐혈종에 합당하여 추적관찰하고자 하였으나 환자가 폐종괴 가능성의 배제를 위하여 외상 4주후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혈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으며 혈종 제거 후 외래 추적관찰중이다.